

5. 다음은 한국 사상가의 주장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없지만, 착하다고 칭찬하면 좋아하고 나쁘다고 꾸짖으면 성낸다. 도둑은 수치심이 없지만, 청렴하다고 칭찬하면 기뻐하고 탐욕스럽다고 꾸짖으면 슬퍼한다. 이로부터, 그 ()을/를 알 수 있다. …(중략)… 오늘 착한 일 하나를 하고 내일 의로운 일 하나를 하여 착한 일을 쌓아가고 의로운 일을 모아 심성을 기르면, 심기(心氣)가 날로 펴지고 편안해지며 날로 넓어지고 살이 썩어서 호연히 굳세고 정직해질 것이다.
- 무릇 성(性)은 모두 ()이다. 천명지성(天命之性)은 선(善)을 즐기고 의(義)를 좋아하니, 그것을 두 가지로 증험(證驗)할 수 있다. ‘눈앞에서 당장 기뻐하고 성내는 것’이 하나의 증거이고, ‘마지막에 이르러 살찌고 마르는 것’이 다른 하나의 증거이다.

6. 다음은 한국 근대 윤리 사상의 내용이다. 밑줄 친 ㉠의 규범을 나타내는 용어를 쓰시오. [2점]

-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 억지로 귀천(貴賤)을 분별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 나는 동(東)에서 나서 동에서 도(道)를 받았으니, 비록 도는 하늘[天]의 도이지만 학(學)은 동쪽의 것이다.
- 도의 실천은 ㉠ 사람을 대하는 대인(對人)과 사물을 접하는 접물(接物)에서 시작한다.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 하늘과 하나 될 수 있고, 사물을 접하는 것에서 천지자연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7. 다음은 서양 사회 사상가들의 주장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 갑: 국가는 인민의 것이다. 인민은 아무렇게 모인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나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중략)… 진정한 자유는 인민이 최고 권력을 갖는 공화국에서만 존재한다. 공화국에서 인민은 ()을/를 통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권리에 있어서 절대적 평등을 보장받는다. 자유는 정의로운 주인을 가지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도 가지지 않는 데 있으며, 자유가 방종이 될 경우 인민과 개인들은 노예상태로 전락할 것이다.
- 을: 트로글로다이트 인(人)들의 공동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시민적 덕성은 정치공동체가 존속하고 번영하는 데 필수적인 공화정부의 정신이며 시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지배적 열정이다. 시민들이 탐욕과 야심을 좇아 ()을/를 무시하면 공화국은 와해되기 때문에 시민적 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적 덕성을 시민들에게 불어넣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들의 열정과 욕망을 공동의 목표를 향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8. 다음은 서양 사회 사상가의 주장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 관계에 대한 애착이 없다면, 보답의 공유가 없다면, 협력에 대한 참여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연고 있는 자아’의 삶이 아니다. …(중략)… 도구적 공동체의 관점은 개인이 사적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통해 얻어 낸 이익을 선(善)으로 본다. 또한 정서적 공동체의 관점은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최종 목적과 협력의 구도 자체를 선으로 간주한다. 진정한 공동체는 이 2가지 공동체를 넘어선다.
- 진정한 공동체는 우리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체에 의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일정 수준 정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의 인격을 만들었고, 또한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의 성취에 있어 참여자이자 내가 누리는 혜택의 공동 수혜자이다.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공동체를 도구적 공동체 또는 정서적 공동체와 대조적으로 ()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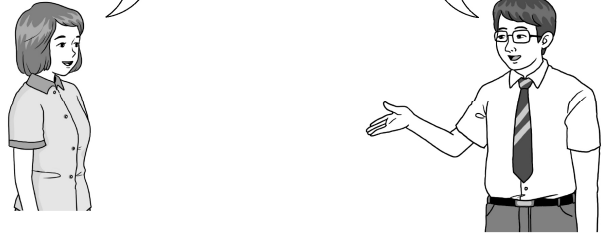
9. 다음은 중학교 '도덕' 교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대한 대화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을 교사가 활용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을 2가지 서술하시오. [4점]

[중학교 '도덕' 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

교육과정 시기 ㉠ 2007 개정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	㉡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	㉢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	---	---	--------------------------------------

㉠, ㉡, ㉢에서 '도덕' 교과의 내용 영역은 '생활 영역 확대'가 아니라 ()을/를 중심으로 설정되었지요.

네, 또한 ㉢에 제시된 '교수·학습 방향'에는 ㉣프로젝트 접근을 실시할 경우, '도덕' 교과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접목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죠.



10. 다음은 도덕 교육 이론가의 글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에서 실행할 중심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서술하시오. [4점]

많은 사람들이 가치 결정을 할 때 항상 엄밀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 답을 탐색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러한 가치 결정의 정당화에 도움을 주는 교수·학습 모형은 (㉠) 모형이다. 이 모형은 가치의 정당성을 중요시하며 논리적 사고를 통해 가치를 탐색하도록 학생들을 도와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먼저 가치 문제를 확인하고 명료화 하며 관련된 사실들을 수집하고, 이어서 사실들의 진위를 평가 하여 그것들의 관련성을 명료화함으로써 잠정적 가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 자기가 내린 가치 결정을 검토하도록 돕는다.

11. 다음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을 서술하시오. [4점]

덕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사유의 덕이라 부르고, 다른 어떤 것들을 품성의 덕이라고 부른다. 철학적 지혜, 이해력은 사유의 덕이라 부르고, 너그러움과 용기는 품성의 덕이라고 부른다. ... (중략) ...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판단 하더라도 ()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느 철학자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 속에 지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지식을 지배하며 지식을 마치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철학자에 따르면 () (이)라는 것은 없다. 즉 최선의 것을 파악하면서 최선의 것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만약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다. ... (중략) ... 그러나 나는 그 철학자의 견해가 관찰된 사실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2. 다음은 서양 윤리 사상가들의 가상 토론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물음에 대한 답을 서술하시오. [4점]

갑: 행복은 바랄 만한 것이며, 목적으로서 바랄 만한 것은 오로지 행복뿐입니다. 나아가 행복은 그 누구의 것이든지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편의(expediency)의 원칙과 구별되는 ()의 원칙에 정초하는 가치 판단 기준에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포함됩니다. '하나의 즐거움이 또 다른 하나의 즐거움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2가지 즐거움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 전부 또는 그 대부분이 더 선호하는 즐거움이 더 바랄 만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자: 그런데 행복 자체가 중요한 것만큼 누구의 행복인지도 중요한 것은 아닌가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행복보다 내 자신의 행복과 가까운 사람의 행복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 대한 을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을: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가까운 사람의 행복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판단에 따르는 행동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이성(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역할만을 담당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더라도, 이를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념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복과 가까운 사람의 행복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을 선생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행복과 가까운 사람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3. 다음은 중국 사상가의 주장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이고, 측은수오사양시비(惻隱羞惡辭讓是非)는 (㉡)이다. 인(仁)으로 사랑하고 의(義)로 미워하며 예(禮)로 사양(辭讓)하고 지(智)로 아는 것이 마음[心]이다. ... (중략) ... 마음은 (㉠)와/과 (㉡)을/를 주재(主宰)한다.
- (㉢)은/는 무엇인가? 오직 '삼가 조심한다[畏]'는 말과 같을 뿐이다.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이,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앉아 전혀 아무 일도 살피지 않는 것을 말함이 아니다. ... (중략) ... (㉢)은/는 오직 일에 따라 전일(全一)하게 삼가 조심하면서 마음을 풀어 놓지 않는 것일 따름이다.

<작성 방법>

-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고, 그 관계를 설명할 것.
- ㉢의 구체적 실행 방법 2가지를 제시할 것.

14. 다음은 홉스(T. Hobbes)와 로크(J. Locke)의 가상 대화이다.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4점]



자연상태에서는 소유권을 보장할 강제 권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자연상태에서는 사회계약과 상관없이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개인의 소유권이 확정됩니다.



자연상태에서는 인간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항상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가 됩니다.

아닙니다. 자연상태에서는 _____ ㉠ _____.



전쟁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닌 권력과 힘을 전면적으로 포기하고 리바이어던에 양도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전쟁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_____ ㉡ _____.



<수고하셨습니다.>